

## 차별화된 품질로 인쇄업계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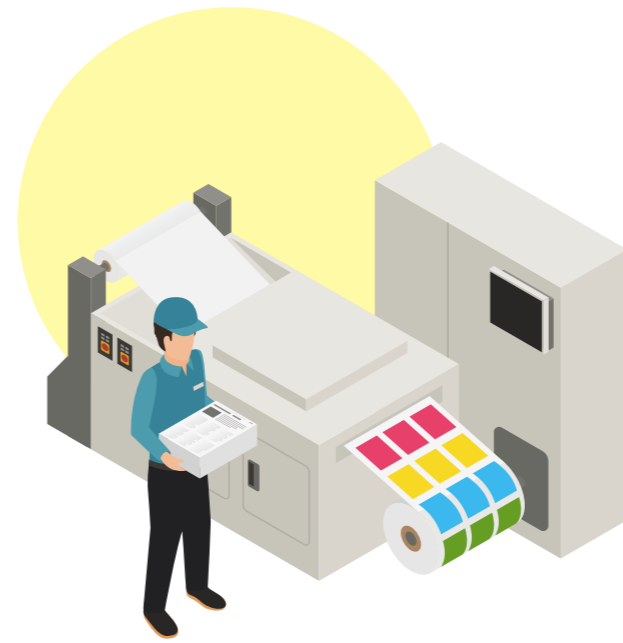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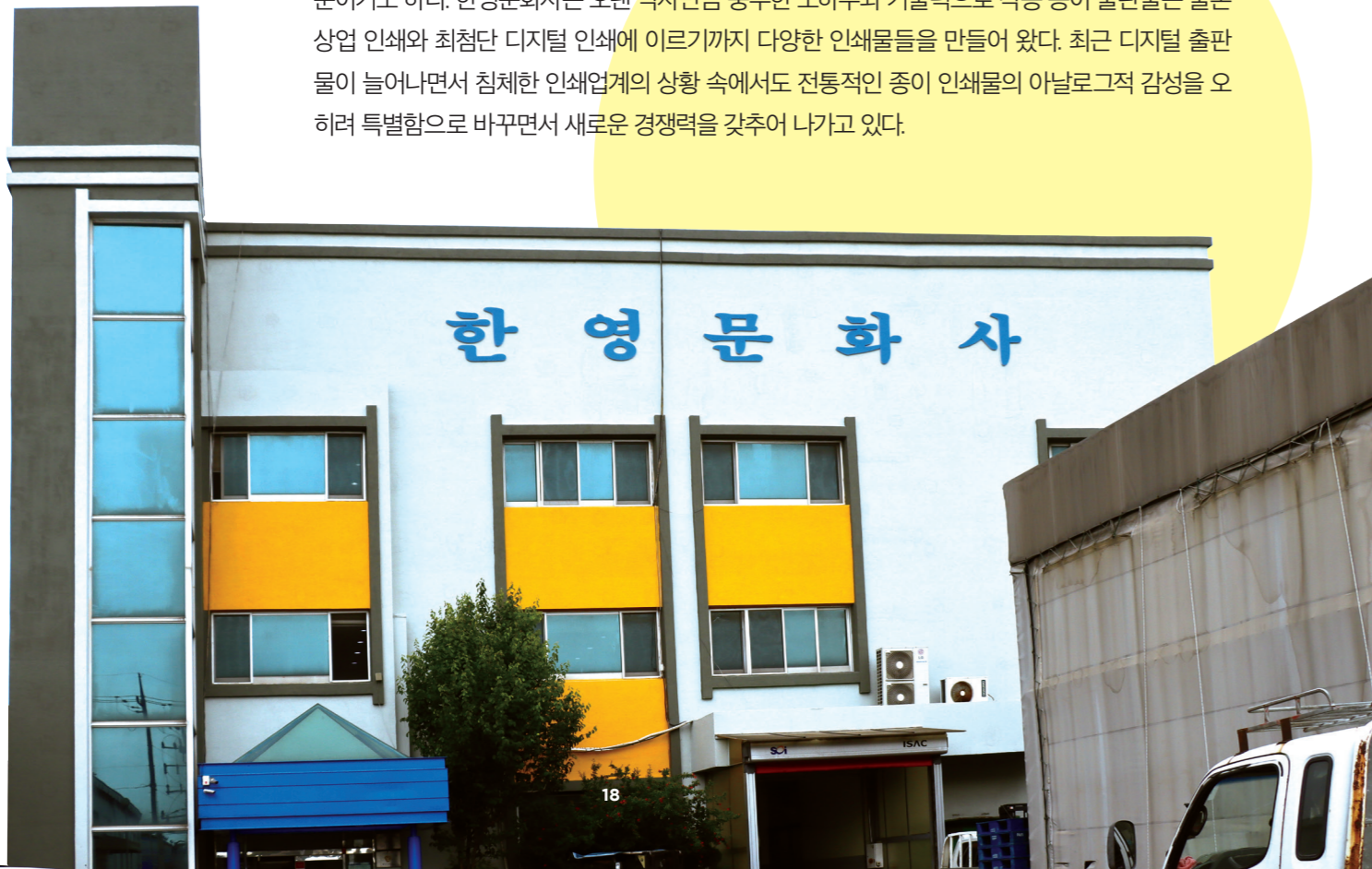
## 한영문화사

고양시 장항동에 위치한 한영문화사는 1966년 설립 이후 50여 년간 우리나라 인쇄업계를 선도해 온 곳이다. 한영문화사는 풍부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인쇄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홍 대표를 만나 경영 노하우와 인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글·사진 최용석(고양시 소설기자)

### 2대째 운영 중인 한국 대표 인쇄업 가문

한영문화사 홍사룡 대표는 원래 직장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설립자인 선친으로부터 가업을 물려 받아 2대째 운영하고 있다. 홍 대표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출판물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기도 했으며, 삼형제 모두 인쇄업계에 종사 중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쇄업 가문이기도 하다. 한영문화사는 오랜 역사만큼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각종 종이 출판물은 물론 상업 인쇄와 최첨단 디지털 인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쇄물들을 만들어 왔다. 최근 디지털 출판 물이 늘어나면서 침체한 인쇄업계의 상황 속에서도 전통적인 종이 인쇄물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오히려 특별함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 플랫폼 개발로 인쇄업계 혁신 주도

한영문화사는 최신 인쇄 장비 도입과 무선제본시스템, 품질향상을 위한 색상측정 장비 도입으로 인쇄공정의 현대화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국내 최초 G7, GMI 등 인쇄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벤처기업인증 획득 및 서울인쇄대상 동상 수상 등 대표적인 아날로그 산업으로 치부되던 인쇄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쇄물 제작대행시스템을 개발해 또 다른 혁신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홍 대표는 '한영문화사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품질의 차별화만이 종이 인쇄물의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활로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인쇄물의 목적이 기존의 정보의 전달이라는 목적과 함께 보관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고 고급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한영문화사가 추구해야 할 길이며 인쇄업계의 미래라고 한다. 그러면서 '신뢰'를 강조한다. 제아무리 현대적인 장비와 최첨단 제작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품질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고객과의 신뢰, 직원과의 신뢰가 바탕에 있지 않다면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한영문화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쇄업계의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어떤 인쇄물이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종합인쇄단지 조성 목표... 관련 산업 시너지 기대

홍 대표의 꿈은 현재 본사가 자리한 장항동에 종합인쇄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인쇄업은 인쇄공장만이 아니라 종이납품업자, 기획사, 인쇄물에 코팅을 하는 UV인쇄, 제본업자, 용달업 등 여러 부분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산업이므로 관련 분야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부디 홍 대표의 믿음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개인의 꿈을 넘어 사양산업이라 평가받는 우리 인쇄업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영문화사 홍사룡 대표

